

## 형사소송법

### 2015년 시행 5급(행정) 공채 제2차시험

응시번호 :

성명 :

제 1 문. 연쇄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한 다음 날 검찰주사 A가 동일수범의 전과가 있는 甲의 집으로 가서 ○○검찰청에 동행해 줄 것을 요구하자 甲은 저항 없이 동행하였다. 甲을 조사하던 도중 검사 P는 甲에게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되자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신문을 계속하였다. 10시간에 걸친 신문 끝에 甲은 결국 방화 사실을 인정하였고 P는 그 내용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하였다. 그 후 P는 범죄인지서를 작성하고, 체포영장을 청구하였다. 다음 날 甲이 선임한 변호인이 甲의 신문에 참여하기 위하여 ○○검찰청을 방문하였지만, P는 구체적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다른 사건과의 관련성과 수사기밀유지를 이유로 변호인의 참여를 거부하였다.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. (총 50점)

- 1) 甲에 대한 A의 처분은 적법한가? (10점)
- 2) P가 작성한 甲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있는가? (20점)
- 3) 변호인의 참여요구에 대한 P의 조치는 적법한가? (10점)
- 4) P의 참여거부처분에 대하여 변호인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? (10점)

제 2 문. 절도의 현행범으로 적법하게 체포된 후 경찰서로 이송된 甲을 수사하던 경찰관 A는 甲에게서 위 범행에 대한 자백을 받았다. A는 甲에게 “여죄도 자백하면 더 가벼운 형을 받을 수 있다.”라고 하였고, 甲은 “Y의 반지를 훔쳐 집에 보관하고 있다.”라고 진술하였다. 이에 A는 같은 날 15:00경 압수·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甲의 집에 들어가 Y의 반지를 찾아 압수하였고, 18:00경 甲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한 후 위 범행들에 대한 자백을 받아 조서에 기재하였다. 2주 후 담당검사 P의 피의자신문에서도 甲은 A에게 한 진술과 동일하게 자백하였다. 2개월 후 공판정에서도 甲은 동일하게 자백하고 있다.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. (총 30점)

- 1) A가 작성한 甲에 대한 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있는가? (10점)
- 2) A가 압수한 Y의 반지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있는가? (10점)
- 3) 甲의 공판정에서의 자백을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있는가? (10점)

제 3 문.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甲은 징역 7년을 선고받은 후 상고하였으나, 소송 중 사망하여 공소기각결정이 확정되었다. 이에 甲의 아들 乙이 무죄의 증거가 발견되었다는 이유로 ○○고등법원에 위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.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. (총 20점)

- 1) 재심청구의 적법성 여부 및 재심청구를 받은 법원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? (10점)
- 2) 만약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었다면, 재심법원의 심판대상 및 가능한 조치는? (10점)

## 인사혁신처 시험출제과장

